

시론



천세진 문화비평가·시인

말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지역어가 그렇다. 말도 생로병사의 운명을 지녔다. 다만 사물에서 발원했으니 전적으로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용 주체인 인간과는 다른 생명 주기를 가졌다. 수명이 아주 길 수도, 아주 짧을 수도 있다. 그 주기는 전적으로 문화적 생태 변화에 따른다.

현재 지구상에 7천개 정도의 언어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문자는 23개 정도다. 언어는 수만 개 넘게 존재했을 것이 분명하고, 문자도 23개보다 최소한 몇 개는 더 존재했을 수 있다. 흔적과 고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인류 역사상 언어와 문자의 고리가 단절된 예는 술하게 존재한다. 많은 문명이 다음 시대와의 연결고리를 상실하고 허무하게 망각의 세계 속으로 사라졌다. 다행히 연결고리를 찾아내 감춰졌던 역사가 드러난 사례도 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는 오랫동안 안개 속에 있었다. 1822년 프랑스 언어학자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1790-1832)이 고대 이집트 문자인 '신성문자'를 해독하기 전까지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는 기이한 형상들의 나열로만 보였다. 그 이전까지 이집트에 대한 이해는 고대 그리스 문헌에 남겨진 내용들에만 의존했다.

로제타스톤과 베히스톤

샹폴리옹의 신성문자 해독은 서로 다른 문명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집트의 문화를 기록한 신성문자는 1798년 이집트 원정을 떠났던 프랑스군이 1799년 로제타 항의 서쪽 나일강 강변에서 발견하여 나폴레옹(1769-1821)의 지시로 프랑스로 가져오려다가 영국군에게 빼앗긴 로제타석(Rosetta Stone)에 담겨 있었다.

로제타석에는 기원전 305-기원전 30년 사이에 이집트를 지배한 마케도니아 헬레니스트라티아 왕조에서 공포한 법령이 기록돼 있었는데, 같은 내용이 기원전 9-7세기에 사용된 이집트 상형문자(신성문자), 이집트 일반대중이 사용했던 문자, 그리스어 등 세 개의 문자로 적혀 있었다. 통치 왕조의 민족과 피지배민족이 서로 달랐던 것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서로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공문서를 만들 때 세 가지 문자로 기록해야 했고, 그 번거로움이 인류에게는 오히려 문화적 축복으로 작용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용한 켈기문자도 신성문자가 해독된 궤적과 같은 길을 걸었다. 켈기문자(설형문자)의 해독은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연 다리우스 1세(기원전 550년 경-기원전 486년 경)의 업적을 기록한 베히스톤(Behistun, 이란 서부 케르만샤주에 있는 유적. 높이 133m의 암벽에 3개의 켈기문자로 내용이 새겨져 있다) 비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다민족 국가였던 페르시아는 비문을 페르시아·엘람·비발로니아(아카드어 후기 형태)의 세 가지 문자로 기록했다.

고대 페르시아어가 1802년 해독돼 있었던 덕분에 영국 동인도회사의 군인 겸 주재원 헨리 롤린슨(1810-1855)이 비문 내용의 '다리우스'를 단서로 1855년 켈기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다. 만약 고구려의 영항권 안에 있었던 말갈, 여진족이 독자적인 문자를 갖고 있었고, 광개토태왕릉비가 통치 권역 안에 들어 있던 말갈, 여진족 등의 문자로 함께 작성되었다면 조작성 같은 것은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언어와 문자가 앞으로 맞을 운명은 소멸이다. 영어만 살아남지는 않겠지만, 소수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어느 학자는 인류의 언어가 영어로 통일되면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극단적이고 반문화적인 주장을 한다. 과연 그럴까. 한국인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불통이다.

걱정스럽게도 하나의 언어로 축소되는 현상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를 잇는 SNS는 소통을 위해 점점 영어로 단일화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거의 모든 언어의 질적 추락이 나타나고 있다. 보편적 소통을 위해서는 언어가 낮은 수준으로 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어와 사용 빈도가 적은 말이 계속해서 사라지면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문화적 생태가 파괴되고 폐허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작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작가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의 언어를 한 몸에 품은 살아있는 로제타스톤과 베히스톤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사회는 그런 고난을 떠맡는 작가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社說

‘사랑의 온도탑’ 나눔의 가치 더해지길

올해도 추운 겨울철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진다.

광주·전남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출범식’이 2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과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다.

올해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를 슬로건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62일간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호소한다.

올해 모금액은 광주가 51억2천만원, 전남이 113억9천만원으로 총 165억1천만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광주는 101%, 전남은 108% 수준으로 설정됐다. 모금된 성금은 우리 지역 소외계층의 긴급생계나 의료, 사회적 돌봄강화, 문화 격차 해소 등 8개 분야 복지사업비로 지원된다.

사랑의 온도탑은 사회 공동체의 배려심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다.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눔은 적은 금액이라도 심시일만 참여하면 행복 온도가 ‘쑹쑹’ 올라가게 된다. 힘들 때일수록 주위를 살펴

보면 자기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려운 이웃에게 겨울은 더 혹독하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을 돕는 온정의 손길을 모아야 한다.

나눔은 사회발전의 활력소로서 자신의 행복감을 높이는 실천 행동이다. 특히 서로 어려운 처지에서 내미는 도움의 손길은 더욱 아름답고 귀한 법이다. 우리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안고 가면 서로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다.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되고, 사랑은 나눔수록 커진다고 한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게 아니다.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사랑의 바이어스는 많이 전파될수록 그 진가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다.

마음과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변을 되돌아보자.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아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나눔 캠페인인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힘겨운 우리 사회에 따뜻하고 훈훈한 온정의 빛을 발하게 바란다.

위기의 지방 건설사...당국 대책 마련 나서라

지방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이후 자체비와 인건비 등 공사 비용이 폭등한 데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주택 미분양, 수주 감소까지 맞물려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4년 사이 30%나 급증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와 같은 직접 공사비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 부문 시중노임 자료 등을 이용해 건설기술연구원이 작성하는 가공통계다. 이 같은 건설 현장에서의 공사비 상승은 건설업체들의 원가를 하락을 주도하며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 건설사들의 원가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폐업하는 건설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올해 들어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는 전국적으로 3천164곳(종합공사업 540곳, 전문공사업 2천624곳)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것으로 건설 경기 불황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6천776가구 중 78%인 5만1천900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어 지방 중·중

중소 건설사들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를 버티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방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현장과 괴리된 단가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건설업계를 더욱 옥죄고 있어서다.

실제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거푸집 항목의 경우 합판거푸집 표준시장단가는 규격별 4-7만원 정도로 설계 금액에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단가는 7-10만원에 이른다. 안전관리비 요율 현실화도 시급하다. 안전관리·감독이 강화돼 안전관리비 실사용 금액이 설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적격심사와 간이형중심제 대상 공사 낙찰률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설계 금액에서 13-20%를 삭감해 낙찰받게 하는 적격심사와 간이형중심제 기준으로는 건설사의 적자는 불가피하다. 낙찰률을 현재보다 10% 이상 높이지 않는 한 지방 건설업계의 붕괴를 막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건설당국이 지방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금까지도 제도 개선에 나서길 촉구한다.

자치칼럼



김병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행정안전부 주도 행정체제개편을 보면서

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역사 속에서 행정구역과 생활권 일치 현상 가능한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란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다는 것인가?

행안부 추진 배경은 문구 자체가 의문투성이고 문제가 많아 보인다.

먼저, 지방소멸은 행안부가 가진 기준에서 비롯된다. 지방자치단체 인구 기준을 토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약 4천만 명이고 와이오밍주는 약 60만 명이다. 약 67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법적인 지위 및 상원의원 수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 더불어 유럽 국가 대부분은 지자체 단위가 수천 명인 경우가 다반사다. 지방소멸은 일본 공무원 출신 학자의 입에서 나온 구호일 뿐 실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앙 및 지방정치인들이 인구소멸을 빌미로 지역의 미래를 지워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역사상 한 번도 이뤄져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행정 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고 언급했다.

윗글은 행안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이 문구를 자세히 들여다 보자. 지방소멸

셋째,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당연한 일이다. 현대사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가? 국민의 요구와 행정 서비스의 불일치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환경 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역할과 기능을 재편해야 할 일이다. 자칫 이런 주장은 행정편의 및 효율을 중심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대체 누가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지적한 것인가? 정부 vs 국민 중 어느 쪽인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부 그것도 행정안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광역 17개 단체와 기초 226개 단체, 2단계 지방행정이 비효율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를 고려하고 행정단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효율 vs 민주로 보면, 문제 제기의 시발점은 효율만을 초점에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체제 개편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마땅히 국민 뜻대로 국리민복, 주민 뜻대로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효율과 민주가 반영돼야 한다. 중앙의 뜻이 아니라 지방을 이루는 각 지역 주체들의 이해와 요구가 담보되는 행정체제 개편을 바란다.

‘불법 사금융’ 범죄 반드시 근절돼야

이 높다. 채권추심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불법 추심 등의 불법 사금융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신고 등을 못하게 협박하는 방식이 많아 신고 자체가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만큼 단속 강화 등 대책이 요구된다.

경찰청에서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1년간 추가로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 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서민을 고통 속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될길 바란다. (이재복·광양경찰서 경무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물어는 詩

이변

김승재

플립 디럭스 유모차 차양막 그늘 밑에

삼대독자대 뚱그린 유리건이 앉아 있다

꿈같은 아이 울음이 눈에 밝혀 아프다

(시조집 '가사도와 진심 사이', 고요아침, 2024)



[시의 눈]

점심 후 잠깐 산책길에 나왔습니다. 서릿발이 치기 전에 벌써 거두어간 한 고구마밭 옆길이지요. 그 길 지나면 평탄한 우레탄 길로 접어들어, 아, 오늘도 흰모자 할머니가 미는 디럭스 유모차가 보입니다. 거기 실린 강아지도 있고요. 참 호강도 하는구나 생각합니다. 뭐, 기관이라면 주인에게 좀소할 들을 벌도 하지요. 한때, 삼대독자를 마지막 태운 유모차라니, 그걸긴 데에 유기견이라도 실는 지금 정이 전해지는 듯 싶습니다. 암평간 궁둥이를 깔고 기웃거리려는 저번런건은 그걸 다 알까요. 할머니의 슬픈 타령따라 들려오다 찾아온 울음이 건곤에도 생생하게 이는 듯합니다. 끄읏! 반려견은 할머니를 애잔히 건너보다 보로 위에 눕습니다. 먼 하늘 뜰로 밝히는 주인의 눈물은 경공 말고는 누구도 모를 겁니다. 손주의 손바닥 같은 단풍잎에 비친 햇살이 그걸 일러나 주듯 붉게 파고드는군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마지 손주를 타이르듯 할머니는 강아지와 눈을 맞추며 애써 눈물을 잊으려 합니다.

김승재 시인은 전남 진도에서 나. 2013년 '시조시학' 신인상으로 등단했고, 2017년 중앙시조백일장 월말 장원을 했습니다. 시조집 '돌에서 길을 보다'(2014), '허수아비'(2018), '대왕암'(2020) 등을 펴냈습니다. 그는 잔치 끝에 혼자 남은 대상의 오롯함과 신선함을 노래하며, 수석연구가다운 응축과 무늬를 시에 유연하게 그리는 돌의 시인입니다. (노창수 시인)

독자투고

불법 사금융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심하다. 불법 사금융이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 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는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사기 등을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법정 이자율 연 20%가 넘는 대부 계약 ▲육성, 협박, 제3자에게 알리는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약속하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개통된 휴대폰 요구 ▲대출 모집인이 아님에도 대출 증개 후 수수료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 범죄의 경우 경제적으로 한계에 직면한 서민들이 주범 대상인 만큼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가능성

